

광주 생산 '스포티지' 해외시장서 '싱싱'

2월 3만7945대 판매 '글로벌 1위' 기아 전체 25만4017대 실적 견인 광주공장 생산 봉고Ⅲ도 국내 1위 부품난 불구 1분기 목표 이상 기대

기아가 지난달 25만4027대 판매라는 호실적을 올린 가운데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포티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으로 집계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스포티지는 3만7945대가 판매되며 기아의 판매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도매 판매 기준 국내 5만16대, 해외 20만3708대, 특수 303대 등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25만4027대를 판매했다.

이는 특수 판매를 제외하고 지난해 같

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26.9% 증가, 해외는 12.0%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3만7945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만6598대, 'K3'가 1만8558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는 국내 준중형 SUV 중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인기 모델로 집계됐던 준중형 SUV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역시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봉고Ⅲ'였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26.9% 증가한 5만16대를 판매했으며 '봉고Ⅲ'는 8977대가 판매됐다.

승용차에서는 레이 4268대, K8 4168대, K5 2653대, 모닝 2049대 등 총 1만4583대가 판매됐으며 RV는 카니발

6039대, 스포티지 5689대, 셀토스 5552대, 쏘렌토 4745대 등 총 2만6360대가 판매됐다.

지난달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2.0% 증가한 20만3708대를 기록했으며 특수 판매는 국내에서 89대, 해외에서 228대를 판매했다.

이처럼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의 영향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실적 개선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아를 비롯한 현대, 한국GM, 쌍용 등 국내 완성차 기업의 국내외 판매량도 지난달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났다. 14.7% 증가한 기아의 뒤를 이어 한국GM은 같은 기간 14.6%, 현대차가 7.3% 증가했으며 쌍용차의 경우 지난해 이 시기 없었던 신차 토레스가 출시되며 5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부품수

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판매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달 호실적에 이어 평년 1분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시기인 3월 실적까지 더해지면 올해 1분기 판매량 초과달성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아 관계자는 "2월 중

일부 반도체 수급 부족 영향이 있었음에도 전년 대비 특근 확대를 통한 물량 확대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며 "SUV 및 친환경차 중심의 믹스 개선을 동반한 양적 성장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세정협조자 선정

광주세관, 납세자의 날 기념식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로 관세행정에 협조해 준 국민과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수석 이문호)에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축하메세지를 전달하고, 관세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다.(사진)

김용식 본부세관장은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세금(稅金)을 아는 주간'으



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감사문구'를 게재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최권범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집값 하락"

비수도권 하락폭 5% 이상 점쳐 지난해 주택매매 가격 광주만 ↑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폭을 '5% 이상' 예상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주택매매가격 반등 시점은 경우 중개업자의 53%, 전문가의 45%, PB의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의 비율은 각각 29%, 34%, 40%로 2024년보다 다소 낮았다.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 그룹 모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정책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등을 지목했다.

올해 주택시장 주요 이슈로는 △거래

절벽 지속 여부 △금리 변동과 영향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속도 내는 아파트 재건축 △청약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월세 부담과 강통전세·역전세 등이 꼽혔다.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진단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하락했다. 연간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으로, 대구(-5.2%), 대전(-4.4%), 수도권(-2.7%)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지난해 광주(2.0%)에서만 유일하게 집값이 올랐다.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 중기 이달 경기전망 소폭 상승

광주 전월비 하락·전남 상승

3월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06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0.6으로 전월(79.5) 대비 1.1p 상승했다. 전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평균 83.1로 광주·전남의 경우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8.4) 대비 3p 하락한 75.4로 전망됐으며 전남은 전월(80.7) 대비 6.0p 상승한 86.7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81.1로 전월(79.7) 대비 1.4p 상승했으며 비제조업은 80.0으로 전월(79.3) 대비 0.7p 상승했다.

지속되고 있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경기전망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9.8→80.1), 수

출(94.0→96.3),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5.9→94.2) 전망은 전월에 비해 상승했으며 자금사정(78.3→75.2), 경상이익(76.3→74.5)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애로는 인건비 상승(63.6%)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원자재 가격상승(55.3%), 내수 부진(53.4%), 업체 간 과당경쟁(36.9%),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35.4%)이 뒤를 이었다.

곽지혜 기자

제 1057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8 13 19 27 40 45	1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6억160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89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4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고행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고행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 전개

임직원 관심·동참 분위기 확산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 KJ상생마루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행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고행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해 고행사랑을 실천하고, 이에 따라 기부금액 전액 세액

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이에 광주은행은 고행사랑기부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해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고행사랑기부제에 나부터 참여하여 홍보하고 적극 전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행사

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지역대표은행으로서 고행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이 임직원들과 더불어 지역민과 고객에게도 널리 전파돼 고행사랑기부제 참여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